



#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박대신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19년 (불기 2562년) 11월 27일 (수)

<http://dongguk.or.kr>

제250호

## 지나온 길 돌아보고 빛나는 새 길 열어가자

### 2019 동국인의 밤 개최 ... 동국인 대상에 김진문 동문

#### 12월 11일 앰배서더호텔에서 만납시다

본회 주최 '2019 동국인의 밤' 행사가 오는 12월11일(수) 오후6시30분 서울 장충동 소재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의 컨셉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변화, 혁신의 비전 메시지를 소통 공감하는 기회의 장'으로 정했다.

식전 행사로 동창회 역사 동영상에 랜덤형식으로 소개된다.

#### 동문합창단 공연으로 개막

3부로 나누어 진행될 이번 행사는 한상권(경영89, KBS아나운서)동문의 사회로 1부에서 동국동문합창단의 '선구자'와

'그리운 금강산' 합창,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키워드로하는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주요 참석자 소개, 박대신 총동창회장 인사말, 학교법인 이사장 법산스님 축사, 윤성이 총장 축사 등이 있게 된다.

#### 동창회 발전 공유의 장

2부는 동창회 발전 공유의 장으로 '총동창회가 걸어온 100년의 시간' 동영상 감상과 '아름다운 동행, 빛나는 동국' 비전 퍼포먼스를 갖는다. 이어 자랑스러운 동국인대상 및 분야별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3부는 동국문화공연의 장으로 만찬과

함께 총동창회 슬로건을 제창하는 건배제의, 문화공연, 행운권 추첨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동국문화 공연의 장은 문화예술 행사위원회(위원장=차연신, 연영85)가 기획, 연출을 맡았다.

한편 본회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2월10일까지 참석희망자의 사전 접수를 받아 좌석등을 지정하기로 했다.

#### 동국인상 수상자 선정

2019년도 동국인 대상에 김진문(경영64, 신성약품 회장)동문이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부문별 수상자는 △사회경제부문 = 황경환(교대원87, 진양유조선 회장) △학술부문 = 김환기(일문87, 모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동문 등

이 받는다. 단체지부상은 경주동창회(회장=조덕형)에게 돌아갔다.

본회 상벌위원회(위원장=김진익)는 11월22일 오후 동창회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2019 동국인의 밤'에서 시상할 자랑스러운 동국인대상 후보자와 각 부문별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후보자, 단체지부 후보자를 각각 심사하고 수상자를 확정했다.

시상식은 12월11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리는 '2019 동국인의 밤'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부상으로 행운의 열쇠를 수여한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수상자 2면〉

#### 알림

#### 2019 동국인의 밤 개최

변화와 혁신 메시지로 30만 동국인의 소통·공감의 장이 될 '2019 동국인의 밤' 송년행사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 일시 : 2019년 12월11일(수) 18:30
- 장소 : 그랜드앰배서더호텔(장충동)
- 내용 : ①의식행사 ②비전 소개, 동국인 대상 등 시상 ③문화공연 + 행운권 추첨(대형 TV 5대 등)
- 회비 : 50,000원 / 1인
- 문의 : 02-733-0303, 0302(사무처)

※ 테이블 및 좌석 先 구매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참가 상품 : 기념품 + 모교 카렌다 등

2019. 11. 27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글로벌 동국' 도약 ... 총 280억원 모금

### 'Energize Dongguk 후원의 밤' 에 총동창회 2억원 약정



▲ 윤성이 모교 총장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정했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는 교육 혁신과 연구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글로벌 동국'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기부자와의 만남의 장 ▲학교 발전목표에 대한 공유의 장 ▲학교 발전 동참의 장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정목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윤성이 동국대 총장의 환영사와 이

#### 동문·불교계 등 대거 동참

모교는 11월5일(화)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된 'Energize Dongguk 후원의 밤' 행사에서 교육인프라, 장학기금 등 학교발전기금 281억 5천만원을 모금했다. 총동창회는 장학기금 및 로터스관 동문공간 기금으로 2억원을 기부, 약

사장 법산 스님의 식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치사, 박대신 총동창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윤성이 총장은 학교 미래비전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윤 총장은 "2022년까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전국대학 1위, 국내대학 상위 10위, 10개 학과 세계 100위를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꼭 필요한 창의융합적 사고를 하는 화쟁형 인재를 키우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부 행사에서는 각종 공연과 현장 약정이 이루어졌다. 현장 약정 20억3천만원, 사전 약정 262억3천만원으로 총 281억 5천만원의 발전기금이 모였다.

이날 행사에는 총동창회 전순표, 임덕규, 심경모, 송석규, 원용선, 이창규, 송석환, 김진문, 한보광 고문을 비롯 많은 동문들이 동참했다.

또 법인이사 민병덕, 정충래, 성타스님, 성우스님과 교수, 직원 등 모두 600여명이 참석했다.

# ‘새로운 100년 비전’ 공감 지지

## 고문 회의 “동국발전의 희망 계속 심어 달라”



▲ 본회 고문단들은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회 고문단 간담회가 9월19일 정오 세종문화회관 지하 설가온한정식집에서 열렸다.

박대신(국문69)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동국을 가장 사랑하시는 고문 선배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다”면서 “우리 동창회가 지난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에서 있다. 이에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한 비전을 마련했으니 설명을 들으신 뒤 동창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고 인사했다.

간담회는 임선기(경행79) 사무총장의 사회로 참석 고문단 소개, 회장 인사, 홍보영상 ‘총동창회가 걸어온 100년’ 감상, 새로운 100년 비전 설명,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100년 비전은 △상황인식 △비전 체계와 전략 및 목표, 과제, 슬로건 △우선 추진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 △결연 순으로 세부 내용이 소개됐다.

특히 우선 추진과제로는 △동문회 활성화 역량강화 △안정적 재원확충 기반 조성 △성장동력 촉진체계 혁신 △모교와 파트너십 유지 △건전한 조직문화 지속 창출 등 5개항을 설정하고 각 과제마다 세부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동창회관 건립 △동국 아너스클럽 운영 △명예의 전당 설치를 통해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동창회로의 정착을 추구하게 된다.

이날 고문들은 역대 동창회에서 볼 수 없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동창회의 마스터 플랜인 새로운 100년 비전에 공감을 표시하며 앞장서서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동창회의 역사와 활동들이 담긴 최초 홍보영상을 감상하고는 동국인의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동창회관 건립 △개방이사 참여 △명예의 전당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고문들은 이구동성으로 동창회관 이전이 불발된 점에 유감을 표시하며 독립회관 마련에 적극 대응해 줄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영(前 호남대 총장) 고문을 비롯 김희형 임덕규 김성재 라동영 조희영 김행남 신윤표 홍영준 송석환 일면스님과 전영화 전임 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 학교법인 이사 ‘동창회 대표’ 시급

## 상임위원회, 공로동문 흉상 제작 의결



▲ 제28대 3차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 현안 문제를 심의, 의결했다.

28대 3차 상임위원회가 10월17일 저녁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려 ‘2019 동국인의 밤 개최’ 등의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상임위원 34명 중 27명과 감사 3인이 참석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있는 주요 보고사항에서는 총동창회 산하 지부(회)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발전동력 약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부(회)장의 임기도 총동창회 회칙 제12조(임원의 임기)에 준하여 활동하도록 권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1호 안건 ‘학교법인동국대학교 개방이사 동창회 대표 추천 건’은 법인 정관 개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현 동창회장을 추천해 1차적 시그널로 삼자고 의견을 모았다.

제2호 안건 ‘상벌위원장 선임 건’은 당연직 위원장인 수석부회장이 공식인 관계로 상임위원 가운데 추천을 받아 김진억(경영73)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상벌위원회’라는 명칭이 주는 이미지가 동창회 친목화합 취지에 반한다며 향후 명칭 변경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3호 안건 ‘흉상 제작의 건’은 총동창

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리자는 뜻에서 한용운 초대 동창회장, 최재구 7~10대 동창회장, 송석환 동진기업 회장 등의 흉상을 제작할 것을 의결했다.

본회는 5억원 이상 발전기금을 출연한 동문의 흉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문태식(사학49), 전순표(농학53)동문의 흉상을 동창회관에 존치하고 있다.

제4호 안건 ‘2019 동국인의 밤’은 12월11일 (수)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기획은 사무처와 문화예술행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제5호 안건 ‘Energize 동국 후원의 밤’ 행사 관련건은 법인·학교와 동반성장의 상생관계를 고려해 총동창회 명의로 2억원을 기부 약정하기로 동의하고, 유력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기타사항으로는 사업재정위원회(위원장=김환배 상임부회장)로부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세제제품 위탁판매사업, 수목장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2019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수상자 프로필

### 동국인 대상 | 김진문 동문



김진문(경영 64, 신성약품(주) 회장) 동문은 1985년 신성약품주식회사를 창립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유통업체로 성장시켰다.

1994년 4월부터 모교 발전을 위해 김진문 장학, 경영학과장학 등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뿐만 아니라 교지 매입기금, 건학 100주년 발전기금, 일산 불교병원발전기금, 로터스관건립기금 등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2018년 가을 학위수여식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총동창회 고문,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동문들의 화합과 교류 증진, 후배 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 사회경제부문 | 황경환 동문



사회경제부문 황경환(교대원87, (주)진양유조선 회장)동문은 1992년 진양유조선 설립해 현재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다.

국제PTP 한국본부 총재, 법무부 교정위원, 울산불교방송 사장, 경북신문 명예회장, 회두피안 NEWS명상센터 등 다양한 사회 활동 경력을 갖고 있다.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자문위원장으로 서 고액의 정재를 기부, 학교 교육환

경개선 및 후학 양성에 크게 공헌하여 2018년 가을 경주캠퍼스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학술부문 | 김환기 동문



학술부문 김환기(일문84, 모교 일본학과 교수) 동문은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1948년 2월 말부터 이듬해인

1949년 6월 제주 빨치산들의 무장봉기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의 해방직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배경으로 한 재일작가 김석범의 ‘화산도’를 최초로 완역해냈다.

2003년 모교 일어일문학과 교수로

부임해 일본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모교 문과대학장, 한국일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지부단체상 | 경주동창회



경주동창회(회장=조덕형)는 경주캠퍼스가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단위동창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 또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매년 경주캠퍼스 대소행사에 참석, 모교당국과 후배들을 응원하고 있다. 지난해 40주년 행사때는 학교발전기금 2억원을 전달했으며, 동국인 한마음골프대회를 주관했다.

# 동국장학회 내년 사업계획 승인

## 안정적 장학기금 확보방안 논의

재단법인동국장학회(이사장=전순표) 2019년 2차 이사회가 임원 15명중 13명(위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11월22일 정오 앰배서더호텔 홍보각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장학회 재산 현황보고에 이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2020년도 장학금 지급액을 6천만원으로 책정하고, 1인당 2백만원씩 30명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장학기금 확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장학이사 홍파스님은

“장학기금의 고갈에 대해 걱정하기 보다는 항구적 조달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1인당 매월 10만원씩 1000명이 참여하면 연간 12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고 구체적 데이터까지 제시했다.

### 김진문 장학회 이사 3천만원

재단법인동국장학회 이사 김진문(경영64, 신성약품(주) 회장)동문이 장학기금 3천만원을 11월14일 장학회에 기탁했다. 김 동문은 지난해 3월27일 동국장학회 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 본회 상벌위원회 구성



김진익 위원장

본회 상벌위원회가 11월1일 구성을 마쳤다. 본회 회칙 31조에 따르면 상벌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이나, 수석부회장이 공석인 관계로 28대-2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진익 상임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상벌위원은 박대

신 총동창회장이 6명을 위촉했으며, 28대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상벌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포상 및 징계를 결정하기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위원장= 김진익(경영73)

△위 원= 이경석(도시공학67) 공영대(화학78) 임선기(경행79) 최대식(회계79) 김태현(불교84) 차연신(연영85)

## 동창회관 건립기금 5천만원 기탁



### 청우 최재구선생 추모사업회사

故 청우 최재구선생 추모사업회(회장=류주형)는 11월18일 정오 총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해 박대신 총동창회에게 동창회관 건립기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추모사업회는 2000년 2월 제7~10대 총동창회장을 지낸 청우 최재구선생 1주기를 맞아 고인의 동국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창립, 그동안 묘소 참배와 함께 ‘동국청우상’을 제정해 12회째 시상하는 등 활발한 모임을 가져왔다.

박대신 회장은 “최재구 선배께서는 동창회장으로 오늘 날 동창회의 발전 기틀을 놓은 중흥조로 알려져 있다”면서 “청우 선배님의 숭고한 뜻을 따르는 후배들이 회관 건립에 동참해줘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 수익 창출사업 MOU체결

## 친환경 제설제 - 공공시설 전기온돌제품 판매

본회 재정 확충을 위해 사업재정위원회(위원장=김환배)가 중심이 돼 추진해 온 수익사업이 하나 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본회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11월15일 동창회 회의실에서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주)삼명테크(대표 임한복) 및 (주)스타스테크(대표 양승찬)간에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본회와 각각 회사는 앞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하며, 특히 본회는 재정 수입 증대를 목표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게 된다.

(주)삼명테크는 에코전기온돌난방시스

템 제품 생산·설비회사로 도로열선 설치, 버스정류장·공원 등 공공시설의 전기온돌 의자, 일반 사무실 및 주택·아파트 전기난방공사 등을 취급하고 있다.

(주)스타스테크는 친환경제설제 제품 연구 개발업체로 본회는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 친환경제설제의 경우, 기존의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은 염분 때문에 생긴 차량 부식 등을 현저히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본회에서 박대신 회장을 비롯 김환배 사업재정위원장, 송일석 사업재정위원회 간사, 임선기 사무총장, 신관호 회장 특보가 참석했다.



▲ 삼명테크와 MOU 체결.



▲ 스타스테크와 MOU 체결.

## 다양한 수익 창출사업 계속 모색

### “사업 성패는 동문들의 관심에 달렸다”



김환배 위원장

새로운 100년 역사 창조위원회 산하 사업재정위원회(위원장=김환배)는 지난 7월 출범 이래 지금까지 모두 7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동창회 재정 수익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검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환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비로 사비 3백만원을 내놓으며 헌신적으로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의 성패는 우리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이며, 얼마든지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고 알찬 성과도 만들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사업재정위원회는 추진사업으로 △친환경 제설제 판매 △경기도 안성의 수목장 △전기온돌시스템 제품 판매 △경기도 무형문화재 판매 △보험 펀드 상품 판매 △동창회보 광고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상정, 검토해왔다.

## 홍보 및 비전 영상 단위동창회 배포

### 동문회 행사시 공감대 형성



본회는 지난 9월20일 만해마을에서 가졌던 ‘새로운 100년 비전 선포’ 후속조치로 당일 행사시 소개되었던 홍보영상 ‘총동창회가 걸어온 100년의 시간’ 과 ‘새로운 100년 비전’ 설명 영상을 많은 동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단위동창회 등에 보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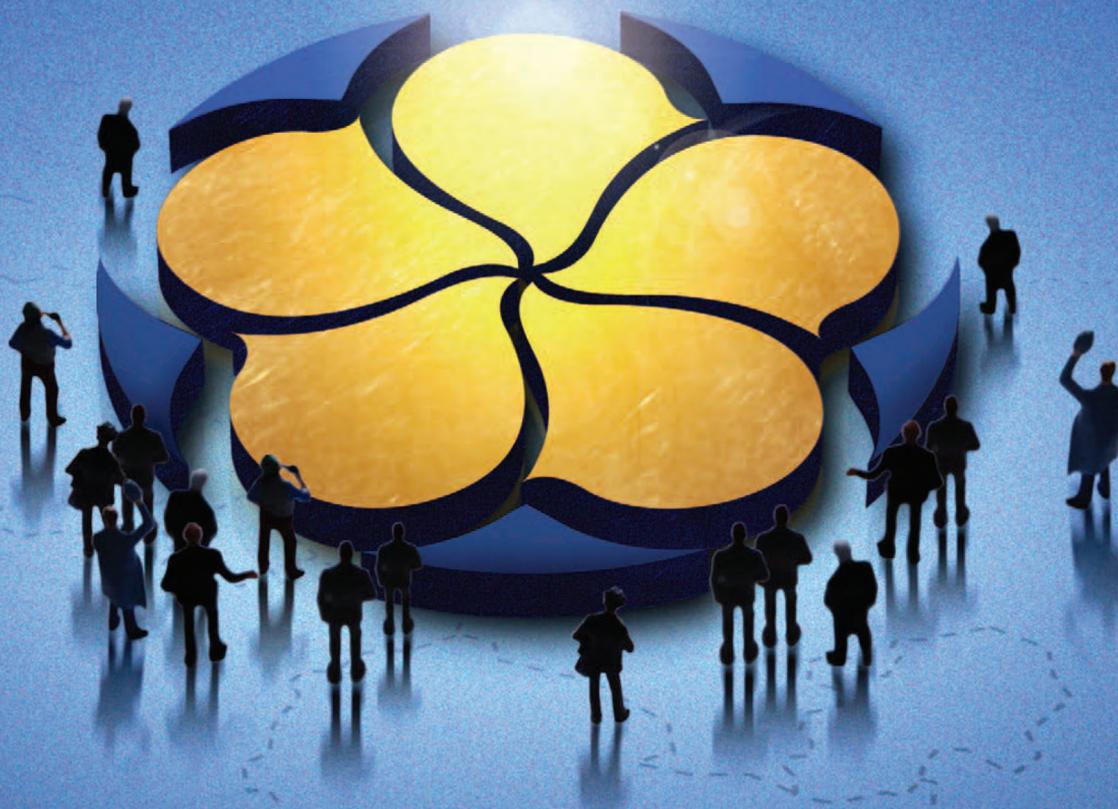
홍보 및 비전 설명 영상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총동창회 사무처에 연락하여 이메일이나 USB로 받을 수 있다.

###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참여방법 개선

- 동문들께서 모교에 기부금을 출연할 때 총동창회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부절차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많은 동문들이 학교에 직접 기부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문으로서 총동창회 참여에 소홀히 한다는 아쉬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제부터 총동창회를 통해 기부하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고 기부금은 전액 모교로 입금되어 기부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고 법정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 동문들이 모교 발전기금 등 각종 모금에 참여하실 때에는 총동창회를 통해서 기부자님들의 꿈과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동창회 사무처

www.mghat.com



부동산신탁의 New Leader

# 무궁화신탁

토지개발에서 관리, 처분, 담보, 컨설팅까지  
오직! 고객의 가치를 키우는 일만 생각합니다

신뢰를 통한 믿음, 가치를 키우는 노하우를 통해  
고객이 주신 큰 믿음에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623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역삼동, 포스코타워)  
Tel 02 . 3456 . 0000 / Fax 02 . 6499 . 2434

# 새로운 100년 비전으로 힘찬 미래를 열다



### 4 총동창회 목표

**목표 (Goal)** 소통공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공유

- 소통공감은 희망을 내면에 간직, 서로 이해 공유 시작
- 참여는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
- 공동체 문화 공유는 대화를 통해 공동체 변화 공유

### 4 모교와 파트너십 유지

동반성장  
상생관계

동창회관  
건립

개방이사  
파송

지지기반  
확충

- 교직원 재학생 변화 주도
- 공동관리기금 확보
- 동창회 대표 임원 반영
- 일제강 조성
- 경쟁력 향상 지원
- 회관건립 추진
- 중·단·법인·학교 공유
- 목표지향적 활동

교직원, 재학생들의 성장지원으로 대외 위상 강화

### 프롤로그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101주년을 맞은 우리 고향중의 고향이다.

이제 새로운 100년의 역사창조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

미래에는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역동적이고도 담대하게 도약한다.

### 5 총동창회 과제

**추진과제 (Task)**

- **우선 추진과제**
  - 1 동문회 활성화 역량 강화
  - 2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 조성
  - 3 성장 동력 촉진 체계 혁신
  - 4 모교와 파트너십 유지
  - 5 건전한 조직문화 지속 창출
- **중·장기 추진과제**
  - 1 동창회관 건립
  - 2 동국 Honors Club 운영
  - 3 명예의 전당 설치

### 5 건전한 조직문화 지속 창출

공동체 문화  
가치관 정립

조직문화  
개선

교류활동  
여건 보장

- 참여형 프로세스 구축
- 상호 존중과 배려
- 유대관계 강화
- 새로운 가치 행동 발굴
- 자긍심과 보람
- 동문사회 변화

관행 개선으로 건전한 공동체 문화 정착

### I 상황인식

- 총동창회는 지난 한세기 동안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문들의 요람
- 이제 지난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 더 많은 변화와 혁신 요구
- 대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지금, 혁신적 비전 준비 목소리 증가
- 앞으로 더 많은 선배님을 모시고 열정과 패기 넘치는 후배들과 함께 활기찬 동문회 문화 구축 노력 절실

### 6 총동창회 슬로건

**슬로건 (Slogan)** 내 생애 최고의 만남! 동국! 영원한 마음의 고향! 동국!

- 내 생애 최고의 만남  
동국인과 소중한 만남으로 삶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성장
- 영원한 마음의 고향  
포근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품 같은 영원한 추억의 고향

### 중·장기 추진과제

#### 1 동창회관 건립

회관건립 추진

- 회장 직속 전담팀 구성
- 조속 해결 방안 마련

건립기금 현황  
(2019.10월 현재)

- 공동관리: 23억3천여만원
- 자체관리: 2억9천여만원

건립기금 확충

- 지속적 모금 운동 전개
- 동문사회 공감대 형성

### 1 비전 체계

**II 비전 및 목표**

미래: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

비전: 아름다운 동행 빛나는 동국

전략: 선택과 집중, 지속과 성장

목표/과제: 소통공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공유

- 1 동문회 활성화 역량 강화
- 2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 조성
- 3 성장 동력 촉진 체계 혁신
- 4 모교와 파트너십 유지
- 5 건전한 조직문화 지속 창출

슬로건: 내 생애 최고의 만남! 동국! 영원한 마음의 고향! 동국!

### 우선 추진과제

#### 1 동문회 활성화 역량 강화

조직체계  
강화

참여의식  
제고

동문사회  
명망가  
스킨십

세계화  
전략

- 지원 체계 구축
- 소통공감
- 오피니언 리더 역할
- 동문연합회 결성
- 현장위주 활동
- 동문조직 활성화
- 문화예술인 참여
- 연대의식 제고

전 동문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에너지 극대화

### 중·장기 추진과제

#### 2 동국 Honors Club 운영

자산 모임 단체

- 남을 위해 헌신, 봉사
- 자비로운 정신 확산

기금조성 활성화  
(2019.10월 현재)

- 1인 1년 100만원 기부
- 참여인원 확대 기반 구축

회원 발굴·충원

- 잠재력 있는 회원 지속 발굴
- 기존 회원 탈퇴시 직접 충원

### 2 총동창회 비전

**비전 (Vision)** 아름다운 동행 빛나는 동국

- 아름다운 동행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동문 사회 구현에 함께 동행
- 빛나는 동국  
큰 광명, 큰 지혜, 큰 힘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한줄기 눈부신 동국의 빛을 의미

### 우선 추진과제

#### 2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 조성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

재정수입  
확대

동문 기업인  
기부문화

- 효율적 재정 운영
- 신규사업 지속 발굴
- 미래 가치 창출
- 재정 자율성 확보
- 수익사업 추진
- 기부자 의도 존중

재정 확충 영역 다양화로 발전동력 확보

### 중·장기 추진과제

#### 3 명예의 전당 설치

전당 건립 추진

- 동창회관 내 공간 마련
- 내부 설계 등 단계별 추진

명예의 전당 현역

- 역대 회장, 동국인 상수상자
- 장학금 등 각종기금기부자
- 동국역사에 길이 빛나는 영광부여

입회자격 요건

- 모교·총동창회 발전 기여
- 큰 공헌, 존경 영월히 기억

### 3 총동창회 전략

**전략 (Strategy)** 선택과 집중, 지속과 성장

- 선택과 집중이라는 實用主義 思考
- 지속과 성장이라는 歷史意識

### 우선 추진과제

#### 3 성장 동력 촉진 체계 혁신

중심세대  
역할정립

재정운영  
건전성

장학사업  
기반구축

소통홍보  
시스템  
구축

- 50대 중심세력 역할
- 체계적 사업관리
-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 인적네트워크 관리
- 40대 차세대 주자
- 효율적 재정운영
- 단계별 기금 마련
- 커뮤니티로 소통공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질적 자산 혁신

### IV 에필로그

- 총동창회는 지난 100년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을 제시하여 아름다운 동문사회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 패러다임(Paradigm)을 전환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와 혁신으로
-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동행 빛나는 동국’ 비전 선포

## 활성화 역량 · 안정적 재원 · 모교 파트너십 제시



▲ 비전워크숍 출발전 참가자들이 박대신 회장, 윤성이 총장 등이 명진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진행된 비전워크숍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총동창회(회장 박대신)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동창회 활성화 역량강화, 안정적 재원확충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동국 100년의 혁신적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학교법인에 개방이사 파송문제 관철, 50대가 중심세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학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재학생 장학사업기반 구축으로 총동창회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동창회는 9월20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박대신 회장과 모교측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지역 회장 등 150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워크숍을 갖고 ‘총동창회 새로운 100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아름다운 동행, 빛나는 동국’의 비전 아래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는 임선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100년의 비전 선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 한세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문들의 요람인 총동창회가 내부의 어려움으로 신뢰 기반이 무너져 위기 관리에 대한 대비책이 긴급하다는 상황 인식 아래 비전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새로운 100년 비전의 우선적 추진 과제로는 ▲동창회 활성화 역량강화 ▲안정적 재원 확충 기반 조성 ▲성장동력 촉진체계 혁신 ▲모교와의 파트너십 유지 ▲건전한 조직문화 지속 창출 등이 제시되었다.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총동창회관 건립 ▲동국 아너스 클럽 운영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추진 과제 중 전국 지역(지부/지회) 동문조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동문회조직 규모 확대, 미결성된 지역 신규결성 촉진, 현장 위주 찾아가는 동창회 활동 강화, 맞춤형 교류 방문 활동 지원책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세계화 전략으로 해외지역 동문조직과의 유대강화, 국내 총동창회 행사 참여기회 확대로 연대의식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재원 확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동문 기업인 동기부여로 기부문화를 복원하기로 했다.

성장동력 촉진체계 혁신 부문에서는 50대가 중심세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40대가 차세대 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모교와의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 동반성장의 상생관

## 자유토론 시간에 쏟아진 발언들 ...

●전영화(경행65) 전 총동창회장= 비전 선포식에 전국 동문들이 참석하는데 대해 감사한다. 모교 동국대학교는 113년전 우리의 선각자들이 터를 잡은 이후 동문 등 각 구성원들이 오늘의 대학을 만들었다.

한 예로, 일산 캠퍼스 조성때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있는 부지를 황명수 전 총동창회장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재임 중 힘쓴 결과 얻은 결실이다. 6,70년대엔 학교 건물 신축때마다 학생들이 등록금과 함께 건축기금을 따로 납부했다. 종단만이 학교의 주인이 아니다. 종단이 배타적, 폐쇄적 운영과 갑질을 하는 인상이 짙어 모교 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족벌체제 타파를 위해 4분의 1 개방 이사를 두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국대 이사진 구성은 스님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사들도 구조적으로 거수기나 다를 없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종단의 전횡이 지양되도록 감시해야 한다.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 발전을 위해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

●정증식(공경76) 부산지역 상임부회장= 모교는 종교 · 학문 · 산업이 연계

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1~2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손기범(행원91) 대구경북지부장= ‘내 생애 최고의 만남 동국’이라는 감동의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유기동(경제65) 인천지부회장= 과거 인천동문회는 4000명의 회원 중 동문회 행사 때마다 3, 400명씩 모였었는데 최근엔 부실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직을 재정비해 인천동문회가 최우수 동문회가 되도록 하겠다.

●박태현(경영66) 광주전남지부장= 앞으로 지부 조직강화와 동문간 친선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겠다.

●김희배(공경81) 경남지부장= 근래 경남지부가 침체됐다. 지부회장으로 활동하고 보니 재력과 덕망있는 동문들과 연결이 잘 안되는데 총동창회 본부와와의 피드백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명부가 입학 기준으로 구성되다 보니 동문을 찾는데 애로가 있다. 따라서 총동창회와 전화 소통은 물론 명부

교환에 상호 호환성을 높이기 바란다. 그리고 회식비와 기금 후원, 장학금 찬조금을 기부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고, 지부 지회 활동과 동문의 미담 화제를 동창회보에 많이 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규성(정의64) 대전충남지부 고문= 모교가 로스쿨 탈락에 가장 가슴 아파게 생각했다. 신정아 사건 때문이라고 한다. 신정아는 누가 데려왔다. 스님들의 책임이 크다.

●이평오(경행75) 전주전북지부 사무국장= 전주전북지역의 동창회 활동은 아직 미약하다. 이번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조직을 강화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김동식(체교70) 강릉지회장= 모교 축구팀 골키퍼로 활동했다. 졸업한 이후 교직생활과 축구협회 국제심판으로 활약했다. 일선 학교 교감 교장으로 있을 때,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교로 보내려 하는데 학부모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가슴 아팠다. 모교가 혁신 체제를 갖춰 우수 학생이 자랑스럽게 진학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여주기 바란다. 훌륭한 선배들이 많은데 동창회나 모교가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박인동(사회79) 동문= 동국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외국인 석학들은 평가하고 있다. 유불선의 동양종교 중 불교의 건학이념을 보면서 세계화하는 불교 정신에 따라 동국대학교가 명문대학이라는 평가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병선(사학82) 前 속초시장= 만해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다. 총동창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부 지회가 다같이 참여하고 힘을 합쳐나가는 계기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 하겠다.

●정상모(정의90) 부산지부 재무국장= 50대 참여율이 저조하다. 각 직장에서 핵심 부서에 있으니 동창회 활동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활동적인 세대이니만큼 총동창회와 지역지부 지회가 힘을 모아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전진표(임학60) 지도위원= 사회로 나와서 모교소식을 들을 때마다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우선 이사회 제도를 고치고, 불필요한 관행을 지양하며, 타성에 젖지 말고 심각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학교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 소통공감으로 변화하는 공동체 문화 ‘스타트’

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총동창회관 사무실 이전문제 해결, 학교법인 개방이사 파송문제 관철 등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동문 인적 네트워크 프로그램 최신화, 동창회보, 앱 메시지 전송 커뮤니티 확대로 소통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동창회 중장기 계획으로는 동창회관 건립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총동창회장 직속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동문 200명이 1년에 100만원씩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동국 아너스 클럽 운영, 역대 회장 주요 추진업무 보존관리와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수상자, 회관기금 장학기금 발전기금 등 기부자 헌액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같은 설명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총동창회 새로운 100년 비전의 선포를 채택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에는 동창회 정책 과제 공유를 위해 전국 지부 지회장을 모두 모셨다”고 말하고, “총동창회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계승 발전할 것은 이어나가고, 동창회 미래 100년의 성취를 위해 채택된 선포의 의제들을 많은 동문들과 함께 뜻을 공유해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

자”고 당부했다.

모교 기획부총장 종호스님은 “모교 1회 졸업생 만해 한용운 선사의 열이 서린 만해마을에서 총동창회 비전 선포식을 가진 의미가 크다”면서 “그동안 총동창회가 하지 못했던 비전 선포식 행사를 보면서 단합된 마음이 모여 큰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교의 현황을 설명한 뒤 총동창회와 앞으로 더욱 성숙된 관계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1부 ‘총동창회가 걸어온 100년의 시간’ 영상 시청이 있었으며, 3부 만찬과 어울림의 시간이 있었다. 뷔페식의 만찬에는 동해안의 싱싱한 수산물과 강원도산 쇠고기 및 산채가 푸짐하게 제공되었다. 어울림의 시간에서는 자연신 부회장이 서울에서 직접 악단을 이끌고와 노래가 있는 여흥시간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만해마을 문인의 집에 객실 배정을 받아 투숙한 뒤 다음날 백담사로 전원 이동해 사찰 순례를 하고, 속초로 이동해 동해바다를 보이는 대선횃집에서 갓 잡아온 우럭 광어회, 해삼 멍게 등 동해안의 싱싱한 해산물로 오찬을 즐겼다.

뒤이어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뒤 오후 7시경 무사히 서울로 돌아와 1박2일의 비전선포식을 마쳤다.

## 만해마을에 전국 시·도지부 임원 150여명 참석



▲ 박대신 총동창회장(왼쪽 네번째)이 동문들과 ‘내생의 최고의 만남, 동국’을 외치며 건배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백담사를 참배하며 ‘영원한 마음의 고향, 동국’을 외쳤다.

## 행사스케치 ... 시작부터 끝까지

●총동창회 비전 선포식 참석을 위해 회장단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9월20일 오후 2시 모교 명진관(석조관) 앞으로 속속들이 집결했다. 1박2일 예정으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비전 선포식에는 모두 150명의 총동창회 집행부와 전국 지부·지회 회장단이 참석할 예정으로 동창회 사무국이 그동안 착착 준비를 진행해왔다.

●서울에서는 100명을 실어나를 두 대의 관광버스가 준비됐다. 부산 대구 경주 대전 강릉지역 임원들은 직접 서울로 들어올 필요없이 만해마을 현지로 출발하기로 해서 서울에서는 버스 두 대를 준비한 것. 동문들은 미리 모교에 가벼운 행장으로 도착해 역사적 나들이라는 무게감에 다소 들뜬 모습이었다.

●버스 출발에 앞서 윤성이 모교 총장은 “모교와 동창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단합되고 결속되어 있다”면서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비전 선포식에서 많은 지혜의 말씀과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모교에서는 윤재웅 사법대학장 등 동문 교수들이 다수 나와 배웅했다.

●버스 두 대에 분승한 동문들은 올림

픽대로를 거쳐 가평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5시20분경 백담사 만해마을에 도착, 1박2일 여정을 시작했다.

●비전 선포식과 자유토론에 이은 만찬 시간에는 오정석(농학72, 전국주류도매업협회장)동문이 협찬한 ‘동국대처럼’ 라벨이 붙은 소주와 맥주, 만해마을이 있는 용대리 이장이 제공한 마가목 전통술로 박대신 회장이 테이블마다 돌며 건배를 제의했다. 박 회장이 “내 생애 최고의 만남!”하고 선창하면 테이블에서 “동국!” 하고 외치고, 또 “영원한 마음의 고향!”하고 외치면 “동국!”하고 구호를 외치며 각자의 술잔을 기울이고 박수를 치며 흥을 돋웠다.

또한 각 지부·지회 집행부들이 서로 자리를 섞어가며 친교를 맺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기수별, 학과별을 무시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은 동창회 조직 활성화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차연신(연영85) 상임부회장이 이끈 여흥 시간에는 많은 자칭 가수들이 나와 노래 솜씨를 선보였다. 이혜림(국교85) 동문은 ‘사랑’이라는 시를 낭송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만찬이 끝난 뒤에는 선물을 한아름씩 가지고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 선물은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 타월을 비롯 모교측이 제공한 머그컵, 윤재민(사학81) 본회 상임부회장이 협찬한 단행본 ‘만해 한용운’과 손기범 대구경북지부장이 준비한 하회탈 목걸이 등이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만해마을은 숲이 우거지고 공기와 물이 깨끗해 수영과 힐링을 하는 명소로 유명한 곳. 모교에서 운영하고 박정훈(사회80) 동문이 만해마을 교육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동문 이용시 40% 할인혜택을 받는 곳이다.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지척에 두고 있는 만해마을은 내설악의 중심에 있다. 한용운 선사의 정신이 깃든 곳이라서 동국인은 한번씩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만해의 집로 비에는 세계적 시인들과 국내 대표적 시인들의 시작품이 동판에 새겨져 전시돼있고, 무엇보다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이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다음날 오전 참가자들은 아침식사를 마친 뒤 백담사로 이동. 가을 여행 시즌이라 백담사는 전국에서 모여든 등산객과 관광객으로 북적거렸는데 동문의 일부는 대웅전 불상 앞에서 3배와 7배,

21배를 하기도 했다.

●백담사에서 다시 전세 버스로 속초로 이동. 속초시 바닷가 대선횃집에서 푸짐하고도 싱싱한 회에 때문양 식사를 마치고 해돋이 정자로 자리를 이동했다. 해돋이 정자는 이병선 동문이 속초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립한 것이어서 정자에서 사진 촬영은 뜻이 깊었다. 일부 동문은 이병선 동문과 함께 정자로 연결된 다리 앞에 세워진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하기도.

●귀로 중 버스에서도 동문들은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이 중 이재형 지도위원(불교64)의 해박한 지식에 동문들이 감동. 이 동문은 “동양사와 서양사, 불교학을 넘나드는 전문지식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성숙된 인간형”을 강론해 공감을 얻었다. 이 동문은 “살아오는 동안 좋은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다”면서 “도망가기를 좋아하는 기회를 신을 포착하는 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동문은 또 “기회를 만들고, 새 역사를 만드는 큰 비전의 모교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동문사회 역시 자긍심을 갖고 각 분야에서 세상을 끌어가는 지도자로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 = 이계홍 소통홍보위원장〉

## 79학번 입학40주년 · 89학번 입학30주년 ‘고향중의 고향’을 다시 찾다



▲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79학번·89학번 동문들이 모교 상징인 명진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79학번 입학40주년기념·89학번 입학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가 10월 19일(토) 오후 3시 모교 중강당 및 상록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79·89학번 동문 및 내외빈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변화된 모교의 발전상을 체험하고 동기간의 우애를 다졌다.

1부 환영행사에 앞서 팔정도 곳곳에서 펼쳐진 식전행사에서는 학위복을 입고 동기끼리 추억의 사진을 촬영하고,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시며 1989년 대한민국 10대 뉴스, 동국대 10대 뉴스, 졸업앨범 등을 보면서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한상권(경영, KBS 아나운서), 박재원(인철, 총지중보편집국장) 동문의 환상적인 듀엣 사회로 문을 연 1부 행사는 ▲동국동문합창단 축하공연 ▲학교홍보영상 관람 ▲내외빈 소개 ▲79학번 최응렬 준비위원장 환영사 ▲89학번 이원호 준비위원장 환영사 ▲윤성이 총장 치사 및 기부보드 전달 ▲박대신 총동창회장 축사 및 금일봉 전달 ▲19학번 환영인사 및 장학증서 전달 ▲88학번 준비위원회 위

장 감사패 전달 ▲추억의 영상 관람 ▲예술대학 연극학부 축하공연 ▲백상 응원단 축하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비 및 후원금의 일부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입학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의 전통에 따라 이날 89학번 동문들은 30년 후배인 19학번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89년도 주요 뉴스와 89학번 신입생 OT 및 MT 등 20대의 추억의 영상을 보며 동문들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넘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후 예술대학 연극학부 재학생 30여명이 뮤지컬 갈라쇼 “ALL SHOOK UP”을 선보여 중강당을 한순간 뮤지컬 공연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마지막 피날레 공연으로는 과거 동대문운동장에서 야구부를 응원하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백상응원단의 리드에 따라 학교 응원가를 큰 소리로 열창하기도 했다.

한편 상록원 3층에서 진행된 2부 행사에는 만찬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회포를 풀었다.

## 법과대학 창립 70주년 기념식

법과대학 창립70주년기념식이 11월 28일(목) 오후 6시30분 모교상록원 3층 교직원식당에서 열린다.

법과대학동창회(회장=김용길, 61학번)와 법과대학(학장=강동욱)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창립기념행사, 공연 및 만찬을 갖고 지난70년을 돌아보며 법과 창신의 신념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의지를 다진다.

법과대학은 1949년 정경학부 법학과

가 처음 문을 연 이래로, 1953년 법정대학 법학과로 분리되었다가 1988년 법과대학으로 독립하여 출범하여 그 동안 시대의 발전과 병행하여 법학을 선도하고,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고 배출했다.

특히 동국법학의 역사는 이처럼 헌정 이후 한국법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였으며 3천여명의 동문들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와 사회의 각 영역에서 지도자 또는 봉사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 사회학과 창립 40주년 기념식

사회학과 창립40주년기념식이 학과(학과장=김정석) 및 동문회(회장=이원호, 89학번, 변호사) 공동주최로 11월1일 오후6시 PJ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 및 재학생, 교수 등 1백40여명이 참석했으며, 은사인 강정구

조은 양영진 등 퇴직 교수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참석 동문들은 학과40주년을 맞아 후배들을 위해 학과발전기금 1천만원을 조성하여 전달 하기로 뜻을 모았다.

## 사범대학 50주년 · 교육대학원 40주년

### ‘학림인의 밤’ 세계 100대 대학 실현 비전 선포

사범대학 입학 50주년(1969년 1회 입학), 교육대학원 입학 40주년(1979년 1회 입학) 기념 행사가 10월11일(금) 모교 교정 및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학술 컨퍼런스, 학교 경영자 연수, 학림인의 밤’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동문 300여명과 중고교 교육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원을 축하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교육대학원 무용 전공 학생들의 북소리와 함께 시작된 ‘학림인의 밤’은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객채기 교무부총장, 전병화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등 동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합창단 축하공연,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 현장실습

우수협조 학교 감사패 전달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학과 85학번 송철근 동문이 1억원을 약정했다. 모교 출신 교장·교감 모임인 ‘동관회’에서 1천만원을, 교육학과 고진호 교수가 1천만원, 사범대학 재직교원 일동이 2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후배와 모교를 향한 릴레이 기부가 이어졌다.

윤재웅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은 “글로벌 에듀 플랫폼 기반 교육분야 세계 100대 대학 실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살아 있는 역사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교육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의과대학설립 40주년 기념식

한의과대학 40주년 기념행사가 10월 26일 경주 보문단지 내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모교와 한의대동창회 주최, 1기 주관으로 열렸으며 객채기 모교 교무부총장, 조덕형 동국대 직할경주동창회장을 비롯해 내·외빈과 동문, 학생, 교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의과대학 40주년 기념영상 상영, 한의과대학 비전선포와 자랑스러운 동문에 대한 동국한의상 수여, 기금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전기금으로 ▲한의과대학 1기 졸업생 일동 5,000만원 ▲한의과대학 교수회 3,000만원 ▲한의과대학 총동창회 850만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회 600만원 등 총 1억여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자랑스러운 동국한의상은 모교 발전 및 동국한의 위상 제고 등의 공로로 △김현수(1기, 前 대한한의학사회장) △정지천(1기, 모교 한의대교수) △강병령(3기, 부산 광도한의원장) △정주화(3기, 서울 화생당한의원장) 등 4명이 수상했다.

## 의과대학, 89학번 홈커밍데이

의과대학은 11월2일 교내 의학관에서 ‘의과대학 4기(1989년) 입학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정일 모교 의과대학장, 탁우택 의과대학 총동창회장과 이재홍 의과대학 4기 입학 대표를 비롯한 89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동문, 교수,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4기 입학학생들은 홈커밍데이 모교 방문을 기념해 모교한 의과대학 발전기금 1억원을 서정일 의과대학 학장에게 전달했다.

1부는 축사, 영상으로 제작한 동문 소개, 추억의 영상 상영 순서로 기념식을 진행했다.

2부는 의학관 투어와 심재철 교수의 추억의 강의, 동문의 기금으로 새롭게 단장할 실습실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서정일 학장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30년간 1300명의 의사를 배출하며 국가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의료인을 육성해 왔다”며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가 동국대 의과대학 발전의 큰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영학과 창립 60주년 ‘경영인의 밤’

경영학과 창립 60주년 ‘경영인의 밤’ 행사가 동문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20일 저녁 그랜드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경영학과장인 정욱 교수의 개회사, 김대통령 경영대학장의 격려사, 퇴임교수 대표 이순룡 교수 축사, 이창규 동문회장의 축사 등이 있었다.

경영학과의 60주년이 있기까지 학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동문에게 주어지는 ‘자랑스러운 동국경영인상’은 59학

번 이창규 동문과 64학번 김진문 동문에 주어졌다.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되어 18학번 김나현 학생과 이지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경영학과는 기업들의 핵심인재를 배출하며 모교를 대표하는 학과중의 하나로 성장했다. 국제화, 교육혁신, 경영 윤리, 전문화를 핵심 가치로 세계 유명 대학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는 동국인입니다”

## 찾아가는 동창회 ... 광주동문회 방문

48학번부터 11학번까지 '동국은 하나'



▲ 광주동문회 참석자들의 기념사진.

‘찾아가는 동창회’를 표방하며 전국지역동창회 순회 행사를 잇고 있는 총동창회가 하반기에 광주동문회(회장=박태현, 경영66, 시온문화사 대표)를 방문했다.

‘총동창회장·모교총장 광주방문 환영’행사가 11월12일 오후 6시30분 광주 금수장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총동창회에서는 박대신 회장과 신관호 회장 특보가, 모교는 윤성이 총장을 대신해 김애주 대외협력처장과 이권학 대외협력실장, 김수진 선생이 방문했다.

행사는 총동창회가 만든 ‘총동창회가 걸어온 100년의 시간’이라는 홍보영상과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 비전 설명 영상 감상으로 시작되었다.

박태현 광주동창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모두는 동국을 사랑해야 한다. 동문회가 활성화 안된 점, 소통이 부족한 점은 사랑으로 감싸며 다함께 동국을, 광주동문회를 더 사랑하자”고 말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새로운 100년

의 새 역사를 쓰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동국을 자랑스럽게, 동국인임을 긍지삼는 내일을 위해 환골탈퇴하자. 그 선두에 총동창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애주 대외협력처장은 “모교는 에너지 동국을 모토로 거듭나고 있다. 중앙일보 평가 상승과 세계 100대 학과 10개 진입 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꿈은 이루어지는데 의미가 있다. 이곳 동문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동문회 발전에 기여해온 이경우(국문48, 91세, 법무사) 초창기 총무와 기인종(경제69, 前농협광주지부장) 前부회장에게 총동창회장 공로패를 수여, 위로했다.

이번 총회에는 48학번부터 손주뻘되는 11학번까지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랜만에 여자동문 4명이 참석해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 전주전북동창회 11월28일 방문

김대권·이승석 동문에게 총동창회장 공로패



장세균 회장

총동창회·모교 합동 지역동창회 순회 8번째 행사로 전주전북동창회(회장=장세균, 철학67, 전북일보 논설위원) 방문 행사가 11월28일 오후6시30분 전주 시내 금양정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전북지방에서 추천한 김대권(사학67, 前교사)동문과 이승석(법학05, 전북도청 사무관) 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김대권 동문은 각종 모임에 100% 출석율을 보이는 모범회원으로 참석 때마다 음악CD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승석 동문은 동창회 총무로 깔끔한 살림살이로 조직활성화의 큰 보배가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전주 시내 서노송동 성지빌딩 5층에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전주전북동창회 방문은 총동창회에서 박대신 회장을 비롯 김오현 상임부회장, 신관호 회장 특보가 참석한다.

## ROTC 신임 회장에 22기 이인석 동문

정기총회·회장 이취임식·27기 30주년 축하



이인석 회장

112 ROTC총동문회(회장=김문선,21기) 2019년 정기총회 및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12월4일 오후 6시 왕십리 민자역사내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다. 신임 회장으로는 22기 이인석(전자공학80, 사업)동문이 취임한다.

이날 행사는 송년의 밤을 겸해 열리며, 27기 임관30주년 축하행사도 갖는다.

위원회 주최, 상록회 주관으로 소피아그린CC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트라장학금으로 5년간(2019-2023) 1억원을 약정하고 2019년 모금액 3천만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25개팀 100명이 참가해 스피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경기는 △우승=강종구(22기) △메달리스트=정동석(23기) △통기스트=정종태(28기) △니어리스트=김순식(20기) △단체우승=23기 등이 차지했다.

### 울트라장학금 모금 골프대회

ROTC 동문간 화합과 울트라장학금 모금을 위한 제3회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10월29일 총동문회·울트라장학

### 한마음한마당 체육대회 열어

112 ROTC 홈커밍데이 및 제11회 한마음한마당 체육대회가 회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월7일 모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EUNMIN | Interior | Architecture | Construction | Exhibition |

CREATE VALUE OF LIFE & SPACE AND DESIGN THE FUTURE.

생활과 공간의 가치를 연구하고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은민은 ‘인간 중심의 창조’와 ‘고객만족’이라는 경영이념으로 1998년 창립 이래 인테리어 업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은민은 보여지는 공간을 넘어 고객의 마음 속에 담겨지는 공감의 공간을 창조합니다.

Value of Better Life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6 (논현동, 은민빌딩) Tel. 02-6930-2300 Fax. 02-6930-2392 www.eunmin.co.kr  
| Seoul HQ, Korea | Beijing, PR China | Hanoi, Vietnam | Phnomphen, Cambodia | Qatar | Sri Lanka | Saipan |

# 세계 100대 대학 '교육·연구·인프라' 혁신안 발표

모교가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교계와 동국 구성원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윤성이 총장은 11월5일 개최된 'Energize Dongguk 후원의 밤'에서 "오늘 이 자리는 자랑스러운 민족사학의 역사를 계승해 더욱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후원을 요청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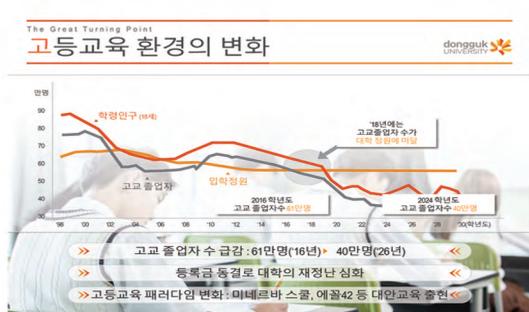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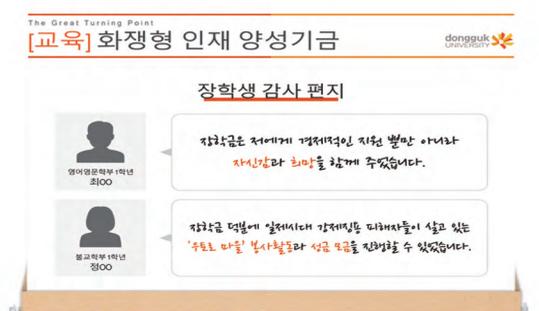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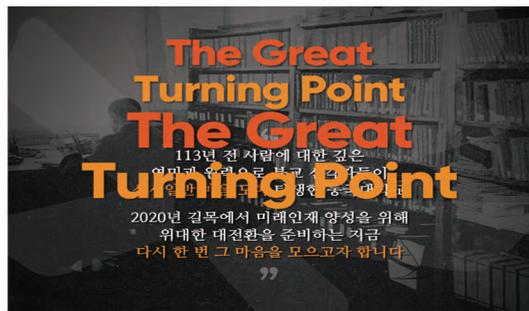
대 대학 달성을 위한 교육·연구·인프라 분야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분야는 '화쟁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장학기금 확충, 글로벌 역량 강화, 학생 창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구분야는 '연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마중물 기금 마련, 대학원생 양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적인 연

구를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인프라분야는 '미래 캠퍼스 구축'을 중심으로 로터스관 건립, 연구공간 마련, 교육시설 확충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대학의 주요 수입재원은 등록금, 국고보조금, 기부금으로 이 가운데 등록금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10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이 늘어나기 어렵고 국고보조금 수입도 한계가 있다"며 "동국의 미래를 위한 발전계획에 뜨겁게 공감해주시고, 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17위

인문계열 6위 · 학생창업 지원 및 성과 3위

11월16일 발표된 2019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모교 종합평가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17위에 머물렀다.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국내 주요 4년제대학 5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학·예체능 가운데 4개 이상 계열을 보유한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삼았다. 평가는 교수연구, 교육여건, 학생교육 노력 및 성과 평판도 등 4개 부문 33개 지표에 3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부문별 종합평가에서 모교는 학생교육 노력 및 성과부문에서 7위로 이름을 올렸지만 교수연구, 교육여건, 평판도에서

는 10위권에서 벗어났다. 세부적으로 '학생창업 지원 및 성과'는 3위에 올랐다. 이 지표는 '창업 지원금'과 '기업수' 등 창업의 양적 성과와 학생 기업의 '매출' 및 '고용효과' 등을 통한 질적 성과를 반영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종합평가 이외에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4개 계열별 순위를 매기는 '계열평가'도 진행했다. 모교는 인문계열 평가에서 6위에 올랐다. 나머지계열은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한편 사회평판도는 지난해 20위에서 16위로 뛰어올랐다.

## 모교 총장배 영남동문 골프대회

모교(총장 윤성이) 주최, 부산동창회(회장 박진호) 주관 '제12회 동국대학교 총장배 영남지역 동문 골프대회'가 지난 10월23일(수) 경남 양산 동부산CC에서 동문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열린 만찬 및 시상식에서 부산동창회 동문들과 황수로 동부산CC 회장이 모교 발전을 기원하며 발전기금 각 1천만

원씩을 모교에 전달했다.

'신페리오' 방식의 경기는 김정학 동문(우수), 김정모 동문(준우수), 이권무 동문(메달리스트(남)), 이윤경 동문(메달리스트(여)), 백두원 동문(통기스트), 문선배 동문(니어리스트)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정학 동문과 이윤경 동문은 즉석에서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참석자들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 경주 미술학과 제자사랑 장학금

경주캠퍼스 '미술학과 제자사랑 장학금' 수여식이 10월31일 교내 100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미술학과 제자사랑 장학금은 미술학과 오창민 학과장을 비롯한 기부자들이 학과의 발전과 성실하고 우수한 제자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기위해 조성한 것이다.

이번 학기에는 서정훈(미술학과 4학

년)학생 등 14명에게 각 1백만원씩 총 1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경주 미술학과는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대상을 비롯해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경상북도미술대전, 경상북도캐릭터디자인공모전, 신라미술대전 등 여러 공모전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 조경학과 89학번 장학금 수여식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89학번 동문들이 11월21일 교내 자연과학관 조경설계실에서 '조경학과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재학생 20명에게 각 1백만원씩 총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올해 입학 30주년을 맞이한 조경학과 89학번 동문들이 성실하고 우수한 조경학과 후배를 지원하고 학

과의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개최된 홈커밍데이 때 출연한 것이다.

조경학과 총동창회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2010년 30주년을 맞은 80학번 동문부터 매년 입학 30주년이 되는 동문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년 20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일산병원' 재활로봇 우수기관' 선정

일산병원(병원장=이해원)은 최근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재활로봇 시범사업에서 성실한 수행결과를 인정받아 '재활로봇 우수 활용 기관'에 선정됐다.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7년 '의료재활로봇 보급사업'의 로봇 활용기관에 선정됐으며, 상지재활로봇(가밀로)과 외골격제어형 보

행재활로봇(엑소워크)을 도입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1월에 재활분야 최고 저널 중의 하나인 미국 재활의학회지(APMR)에 '외골격형 전기-기계식 보행보조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걷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무작위배정 임상연구'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 특별전

진관사 태극기, 안중근 의사 유묵 선보여



▲ 등록문화재 제458호 진관사 태극기(왼쪽)와 만해 한용운 스님 염주.

모교 박물관(관장 최응천)이 10월15일(화)부터 12월13일까지 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을 개최한다. 100년 전 항일운동의 선봉이 되었던 당시 불교계의 활약상과 소중한 불교정신이 담긴 귀중한 유물인 등록문화재 제458호 진관사 태극기, 보물 제569호 안중근의사 유묵 등 54건 98여 점을 전시중이다.

총 4부로 구성되어 도입부 <경동기의

조선, 그리고 일본의 침탈>과 1부 <불교, 일제에 저항하다>를 통해 일본으로 부터 불교계가 국가를 지키고자 한 노력을 볼 수 있다.

2부 <한국불교를 수호하다>에서는 일제의 불교 탄압과 한국불교의 왜색화에 맞서 전통불교를 수호하기 위한 모습을 전시했다. 3부 <전통 위에 도약하다>는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전통을 기반으로 근대화로 도약하여 제작한 미술품들을 선보였다.

## 국제발명전시회 참가자 전원 수상

동국대 d.캠퍼스 CEO(창업동아리)들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 9월26일부터 28일까지 타이베이 세계 무역 센터에서 열린 '2019 대만 국제발명전시회(영문명: 2019 Taiwan Innotech Expo)'에서 4개의 학생 창업팀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중화권 최대 연례 발명 및 신기술 관련 국제 발명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는 총 20개국에서 800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후배 재학생들은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금상, 은상, 장려상을 각각 받았으며, 특별상을 중복 수상했다.

##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모교 기계공학과 박인표, 김현우, 정현수 학생의 '안심귀가 도어락' 아이디어가 10월22일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주관 제5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

상했다.

올해는 일반부 113건, 경찰부 89건 등 총 20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각 부에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이 수여됐다.

## '데이터 우수프로젝트' 최우수상

모교 생명과학과 이가원 외 4명으로 구성된 BBBig팀(Be the Best Bigdata scientist)이 10월2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2019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우수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했다.

BBBig팀은 이번 경진대회에 'Cold Eyes : CCTV 영상 빅데이터 분석+이미지프로세싱+딥러닝'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 SAS 데이터 분석 대회 대상 수상

모교 통계학과 팀(박태렬, 오지수, 이소윤)이 10월20일 '제17회 SAS분석 챔피언십' 공모전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개월 간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270여 명(192

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950만원의 상금과 각 개인 별로 360만 원 상당의 SAS 정규 교육 이용권이 증정되며, SAS코리아 인턴십 지원시 가산점 혜택을 준다.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IBK동반자금융

“언젠가 만나게 될 거예요”  
**기업은행의 기업은  
 당신입니다**

먼저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힘이 되도록  
 약속할게요. 늘 곁에 있겠다고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www.외동석재.nasoft.kr

**경주 남산석 불교조각의 명가**

**경상북도 석공예부문 최고장인, 사대 22기 한동식**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610-4 대표전화 \_ (054) 777-0404, 776-9500~3 FAX \_ (054) 776-9504  
 웹하드 \_ ID : wdston PW : 7770404 무료전화 \_ 080-855-9500 E-mail \_ od0404@daum.net

**외동석재**  
 oedong stone company

### 본각스님, 12대 전국비구니회장 취임



본각스님(철학72, 고양 금륜사 주지)이 11월13일 제 12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에 취임했다. 본 각스님은 '현실적인 복지 체계 구축', '인재육성',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 등을 약속했다.

본각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우선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력'이라는 가치가 비구니승가에 뿌리내릴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 대중공의에 의해 운영되는, 열려있 는 전국비구니회,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전국 비구니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승가교육과 후학양성에 매진했다.

제11대~13대 중앙종회의원, 한국비구니연구소장,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등 을 역임했다. 현재 고양 금륜사 주지를 맡고 있다.

### 제31회 포교대상 윤청광 동문·우학스님



윤청광 동문



우학스님

윤청광(영문59, 한국출판 문화재단 이사장) 동문과 우 학스님(선학84, 한국불교대 학 대관음사 회주)이 나란이 12월3일 제31회 대한불교조 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한다.

윤 동문은 불교신문, 법보 신문 논설위원으로 다양한 저 작활동 등을 이어온 작가다. 대 표 저작으로 <고승열전>, <불교를 알면 즐겁다>, <회색 고무신> 등이 있다.

우학 스님은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 포교를 시작으로 1996년부터 국내외 에 10여개 도량을 설립했다.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과 NGO BUD를 비 롯해 의료법인 무일의료재단, 도서출판 좋은인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취 임 · 영 전

#### 제7대 의왕문화원장



이동수(임학67) 동문 이 10월1일 제7대 의왕 문화원장에 취임했다. 1999년 의왕문화원 창 립 발기 때부터 부원장 으 로 활 동해 왔으며 의

왕시 5·6대 시의원으로 당선돼 시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 육군 제12사단장



정 덕 성 (영 문 87, ROTC 29기) 동문이 11월18일 육군 제12사 단장에 부임했다. 이달 초 국방부 인사에서 소 장으로 진급했다.

2018년 29기중 유일하게 별을 달아 동 국 ROTC의 명예를 빛냈다.

#### KBS교향악단 사무국장



남철우(농경89) 동문 이 11월1일 한국방송 공사 KBS교향악단 제 4대 사무국장으로 부 임했다. 1996년 KBS 에 입사해 홍보실, 대외 정책실, 비서실, 공영미디어연구소를 두 루 거친 홍보마케팅 전문가이다.

#### 휴스턴 주립대 교수



강동혁(경영02) 동문 이 미국 휴스턴주립대 학교(빅토리아) 경영학 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지난 5월 매펠스주립 대학교에서 경영학박 사학위를 받았다.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장



심재흔(언론정보대학 원05) 동문이 남양주시 다산동 경기시청자미 디어센터 초대 센터장 으 로 10월1일 취임했 다. KBS 시사·교양 전문프로듀서로서 30여년간 근무했다.

####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 이사



김진광(사법대학원 14) 동문이 10월1일 국 립공원공단 자원보전 이사로 임명됐다. 국립 공원공단 자원보전처 장, 태백산 관리준비단 (TF) 단장, 안전대책부장, 재난안전부장, 지리산남부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 수 상

#### 사학육성공로 '봉황장'



송석환(농경64, 김천 고등학교 재단이사장) 동문이 중등사학의 육 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 로로 한국사립초중고 법인협회가 수여하 는 봉황장을 받는다. 시상식은 11월28일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 린다.

#### '제18회 산의 날' 대통령 표창



이학송(불교78, 前부 산장안중 교장) 동문이 10월17일 '제18회 산 의 날 기념식 & 국립대 전숲체원 개원식' 에서 산림복지 증진과 임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 았다.

#### '교정의 날' 국무총리 표창



유원표(통계75, 한양 주류 대표이사) 동문은 10월 28일 열린 제74 주년 교정의 날 행사에 서 교정행정 발전에 기 여한 공로로 법무부로 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인쇄문화의 날' 대통령 표창



허성운(언론정보대학 원 64기, 동방인쇄공사 대표) 동문이 9월14일 제31회 인쇄문화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 을 받았다.

### 장 학 금

#### 제29회 범우출판 장학금



윤형두(법학55, 재단 법인 범우출판문화재 단 이사장) 본회 고문은 10월27일 파주출판단 지 소재 범우사옥 잔디 광장에서 제29회 범우 출판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4명에게 2천 만원을 전달했다.

국내 유일의 출판장학금으로 1991년 부터 27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 제15회 원법사 장학금



해운스님(불교15, 포 향 원법사 주지)은 10 월20일 원법사 약사전 에서 제15회 원법사장 학금 수여식을 갖고 박 대신 총동창회장이 추 천한 권소현(경주 호텔관광오식경영학부 1학년) 후배와 포항시 관내 초중고 및 대 학·대학원생 44여명에게 장학금 2천 400만원을 전달했다.

### 출 판 기 념 회

#### 홍파스님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



홍파스님(불교63, 대 한불교관음종 총무원 장) 본회 고문은 11월6 일 서울 낙산묘각사에서 저서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 봉정식을 가 졌다. 2017년 3월부터 불자들에게 1분 법문을 음성으로 발송해 온 '아침해우 소'의 원고를 엮어냈다.

#### 남요원 '광장에서 마음을, 저자...'



남요원(철학81, 前 청 와대 문화비서관) 동문 이 저서 '광장에서 마 음을, 저자거리에서 생 각을' 출판기념회를 11 월7일 한신대에서 개최 했다.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참모진으 로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긴 고민과 대

통령을 모시며 국정운영 경험을 통해 느 끼고 상상했던 생각의 조각을 모았다.

#### 최재성 '성공하는 결정, 실패...'



최재성(불교84, 국회 의원·4선) 동문이 12 월3일 오후7시 잠실학 생체육관에서 저서 '성 공하는 결정, 실패하는 결정-리더의 결정은 실패가 많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승부의 순간에 리더는 어떻게 선택하 고 결정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저자 의 사색과 경험의 흔적들을 엮었다.

#### 이원호 '새들을 태우고...'



이원호(사회89, 변호 사) 동문이 12월8일 오후5시 남양주시 경춘 로 웨딩라포엠에서 시 집 '새들을 태우고 바 람이 난다' 출판기념회 를 갖는다. 시집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 람, 하늘, 바람, 나무, 풀, 그리고 저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 전재수 '따뜻한, 숨'



전재수(역사교육90, 국회의원) 동문은 두 번 째 저서 '따뜻한, 숨' 출판기념회를 10월26 일 부산과학기술대학 교 체육관에서 열었다.

저서는 살아온 인생에 대한 성찰과 그 동안의 삶의 경험, 정치철학 등을 진솔하 게 토로하고 있다.

#### 이상식 '상식이 통하는 대구'



이상식(대학원09) 동 문이 '상식이 통하는 대구' 출판기념회를 11월28일 대구 수성관 광호텔에서 갖는다. 제 34회 행정고시 합격후 경찰에 투신해 경찰청 정보국장, 대구·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본인 또는 주변동문 동정을 알려주세요 E-mail : dongguka@naver.com

여자총동창회 | 장학금 수여식 · 송년의 밤



여자총동창회(회장 김애주, 영문76, 모교 대외협력처장)는 올해 2학기 장학금으로 김유정(기계로봇에너지공학4), 안소민(영화영상학4), 김유린(경찰행정학3) 등 3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김애주 회장을 비롯해 조충미, 조미옥, 김태현, 사기순, 김미형, 김보원, 이혜림, 차연신, 박병옥 동문 등이 참석했다.

한편 총회겸 송년의 밤 행사는 12월16일 오후 6시30분 서울 역삼동 아르누보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2019년도 업무 및 회계보고, 신년 사업계획 발표, 행운권 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음악과 춤과 시가 있는 매혹적인 시간' 을 갖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게 된다.

대구경북동창회 | 송년의 밤

대구경북동창회(회장=손기범, 행대원91, 동부허병원 상임교문)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5일(목) 오후7시 대구 MBC방송국 옆 문화웨딩에서 열린다. 앞서 손기범 회장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총괄준비위원장 손진걸, 준비위원장 이종호, 준비위원 김동읍 동문 등 10여명으로 T/F팀을 구성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반응이 좋았던 1인 1선물 주고받기도 진행한다.

대전충남세종시동창회 | 송년의 밤

대전충남세종시동창회(회장=김종욱) 2019송년의 밤 행사가 12월10일(화) 오후 7시 중국대반점에서 열린다. 매월 월례회를 통해 회원간 친목을 다져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 희망을 나누는 덕담으로 조용하게 치러진다.

구리남양주동문회 | 송년모임

구리남양주동문회(회장=박상하, 영문80) 송년모임이 11월29일 오후 6시30분 도농동 소재 웨딩라포엠에서 개최된다. 이날 모임에서는 회원간 유대강화와 조직 강

화 등의 동문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선후배간 덕담으로 동국인의 자부심을 공유할 예정이다.

불교학과동문회 | 송년의 밤

불교학과동문회(회장=박순, 불교66, 前 불교여성개발원장)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4일 오후 6시 충무로역 근처 대림정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학과창설 113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정기총회도 겸하게 된다.

식품공학과동문회 | 한마음 체육대회



식품공학과동문회(회장=이범주, 78식공, (주)케미랜드 대표이사)는 10월9일 선·후배 동문과 교수, 재학생 및 대학원생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만해광장에서 '2019년 최강 식공 한마음 체육대회' 를 열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박 터트리기를 시작으로 줄다리기, 신발투호, 미션달리기, 족구 등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졸업생들은 족구게임 후 우승 상금을 만들어 학생회에 전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경영전문대학원총동창회 | 송년의 밤

경영전문대학원총동창회(회장=김창걸) 2019년도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2일 오후6시 장충동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에 대한 축하패 및 공로패 수여, 가수 초청 공연 및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이 있을 예정이다.

불교대학원동창회 | 총회 겸 송년법회



불교대학원동창회(회장=지울스님, 사진) 총회 겸 송년법회가 11월29일 오후 6시30분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린다. 행사는 1부 총회에서 예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다룬 뒤, 2부는 만남과 화합을 위한 만찬과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을 갖는다.

행정대학원동문회 | 회장에 법타스님



행정대학원동문회(회장=최광일) 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14일(토) 오후 6시30분 모교 상록원 2층 식당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는 11월4일 이사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추천된 법타스님(행원18, 조계종 원로의원)의 회장 취임식도 갖는다.

83학번동기회 | 송년모임

83학번동기회(회장=김창호) 송년회가 11월23일 앰배서더명동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83학번인 윤성이 모교 총장을 비롯 50여명의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모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을 앞장서서 모금해 동기동창인 윤 총장에게 힘을 듬뿍 실어 주자고 다짐했다.

동국동문합창단 | 창단 2주년 연주회



동국동문합창단(단장 강석우, 77연영)이 창단 2주년을 기념하여 10월15일(화) 오후 8시 모교 중강당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윤예희(연영88) 동문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1부 봄소식 △2부 중창과 독창 △3부 가을의 길목에서 순으로 진행됐다.

합창단은 2017년 12월 19일 창단 이후 매주 화요일마다 모교에서 모여 꾸준히 연습을 해왔으며, 단원은 현재 100여명이다.

동행라이온스클럽 | 장학금 수여식



동행라이온스클럽(회장=홍종표, 사진) 신입회원 입회식 겸 장학금 수여식이 11월20일 오전 모교 상록원 교직원 식당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명의 신입 라이온에게 회원패가 전달했으며, 장학금은 3명에게 지급됐다.

연안해상 유류운송업의 리더

**경진양1호 취항** (축)

열정으로 가득한 도전 에너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주)진양유조선**  
대표이사 회장 **황경환**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5-7번지 (대우증권빌딩 2층)  
전화 : (052) 269-3071~2  
팩스 : (052) 261-5556

**대자기업주식회사**  
(토공, 비계, 철근·콘, 상·하수도, 금속창호, 포장)  
ISO 9001 인증

대표이사  
**조석규**  
(토목 68入)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포로 154, 3층 (양재동, 호성빌딩)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 ‘故 박영석 대장 탐험정신 계승의 날’



‘대장’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운 동국인, 故 박영석(체교83, 산악인)동문이 우리 곁을 떠난 지 8년이 되었다. 박영석 동문을 기리는 ‘제8회 산악인 박영석 대장 탐험도전정신 계승의 날’ 기념 행사가 10월 17일 오후 중앙도서관 입구 박영석 부조 앞에서 열렸다.

곽채기 모교 교무부총장과 이영균 박영석재단 이사장, 김헌태 동국산악회장, 김종현 총학생회장, 김효서 동국산악부장의 추념사가 있는 뒤, ALPENTRIO와 요들러 서용을 씨의 추모공연이 이어졌다.

故 박영석 대장은 1983년 체육교육과에 입학과 동시에 동국산악회에 가입한 이후 줄곧 산악인의 길을 걸었다. 이후 △1993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 아시아 최초 무산소 등정 △2001년 세계 최단 기간 히말라야 8000m 14개 봉 완등 △2005년 인류 최초 산악그랜드슬램(7대륙 최고봉 등정 및 3극점 도달) 달성 △2009년 에베레스트(8848m) 남서벽 코리아 신(新)루트 개척 등 인간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세계 최초로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산악계의 큰 발자취를 남겼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고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강조했던 故박영석 대장. 2011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남벽을 새로운 루트로 오르다 불의의 사고로 실종됐다. 그는 후배들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준 영원한 동국인으로 남아 있다.

## ROTC 중앙회에 ‘김범수실’ 명명



故 김범수(경영98, ROTC 40기, 대위)동문의 참 군인정신과 살신성인의 모습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ROTC 중앙회가 11월5일 회의실 이름을 ‘김범수실’로 명명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김범수실’ 명명식에는 동국대에서 ROTC 김문선 회장(21기, 오른쪽 네 번째)과 임선기 총동창회 사무총장(21기, 오른쪽 세 번째)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진철훈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 및 황보주일 40기 총동기회장 등이 함께하며 고인의 유훈을 기렸다.

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한 김 동문은 2004년 2월 18일 사단 신병 교육대대에서 한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고 던지지 못한 수류탄을 가슴에 끌어안고 숨졌다. 그의 희생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훈련병과 교관, 조교 등 296명은 무사할 수 있었다. 故 김 동문은 2004년 3월3일 중위에서 대위로 추서진급 되었고, 국가는 그해 3월 31일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모교와 ROTC동창회는 2006년 만해동산 동우탑 옆에 김범수 대위 흉상을 세워 흠모하고 있다.

### 민족혁명가 김원봉

이원규 지음 / 한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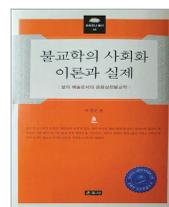


이원규(국문68, 소설가, 前 모교 문창과 겸임교수)동문이 2006년 발행 ‘약산 김원봉 평전’을 전면 개정판 증보판 ‘민족혁명가 김원봉’을 내놓았다.

3·1운동과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기획으로 출간된 이 책은 김원봉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온몸을 던져 순국한 200여명의 민족영웅을 새롭게 조망한다. 작가는 이 책에 대해 “민족해방을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독립투사의 참모습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록”이라면서 “더 많은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일부는 소설 형식을 취했지만 허구가 아닌 자료나 증언을 바탕으로 한 팩션이다.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최대한 검증된 자료와 증언으로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한다.

###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박경준 지음 / 운주사



박경준(불교73, 동국대 명예교수)동문이 대학 강단에서 정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발표한 주요 논문 28편을 엮어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2019년도 대한민국의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저자는 종교를 ‘산 종교’와 ‘죽은 종교’로 구분하고 “박물관 안에 박제화되어 있거나 경전 속에 갇혀 있는 종교가 죽은 종교라면, 동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종교가 산 종교이다”라고 말한다.

불교의 사회화, 불교의 사회참여는 한국 불교계의 오랜 화두이자 뜨거운 감자이다. 이 책은 40여 년 동안 학문의 길을 걸으며 ‘불교의 사회화’를 화두 삼아 탐구한 결실을 한데 모아 엮은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여 한국 불교학의 ‘불교사회 교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 그 여름의 두만강

이 정 지음 / 책만드는집



이 정(승가76)동문이 소설집 ‘그 여름의 두만강’을 선보였다. 표제작인 「그 여름의 두만강」을 비롯해 총 13편의 단편이 실렸다. 그중 「시인의 귀향」은 어두운 현실과 관계되는 소설 가운데서도 특히 빛을 발하는 환한 미래에 관한 소설이다. 작가는 남북 문화 교류를 위해 북한을 수차례 다녀오기도 했고,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중국을 수백여 차례나 다녀와 취재를 했다. 2010년 단편 ‘붉은 멧기머리새’가 [계간문예]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북한을 7차례 방문하는 등 20여 년간 북한을 취재해 왔다.

## 태양금속공업 (주)

회장

한 우 삼

(경영학과 63학번)

www.taeyangmetal.co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Tel. 031) 490-5500 (대), 031) 490-5770, 5767

Fax, 031) 492-5234 / E-mail, wshahn@taeyangmetal.com

## 한석시스템

대표이사 김진길 (행정 78학)



# 나를 바라 보는 또 다른 세상



낙산묘각사 템플스테이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송인동) 전화 : (02)763-3109  
홈페이지 : www.myogaksa.net

## 도심 속 고요한 휴식공간 “낙산묘각사 템플스테이”

주변 사람,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곳, 현재에 존재함이 내 자신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도심 속 사찰 묘각사에서 몸과 마음을  
쉬었다 가세요.

Where is your mind ?

- ▶ 1박2일 체험, 당일 체험
- ▶ 108배, 참선, 다도 & 스님과의 대화, 예불, 타종, 사찰안내

www.guro.go.kr



구로구청장 이 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Tel. (02) 860-2323 Fax. (02) 860-3010  
Mobile. 010-4107-0945 E-mail. leesung@gur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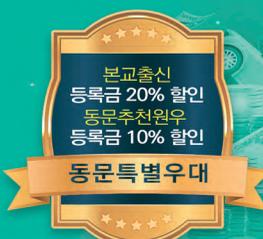
# 五沅物産株式會社

會長 許秀昌  
(불교경영자최고위과정 08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0, 501호 (관훈동, 오원빌딩)

Tel. 02) 739-5534 (直), Fax. 02) 739-5537  
02) 739-5535~6 Mobile. 010-5261-7396  
E-mail. o-won@o-won.co.kr

dongguk UNIVERSITY | 행정대학원 · REACEO



## 제42기

은퇴 및 노후를 대비한 종합 프로그램

# 부·자 AMP

글로벌 통찰력으로 부동산시장의 트렌드와  
미래를 예측하여 자산가치를 증대시켜 드립니다!



T. 02.2260.8572 / 02.2260.8574 http://www.dgureceo.com

동국대학교 42th

##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 교육구성

구분	내용
교육기간	2020년 3월 10일(화) ~ 2020년 12월 15일(화)
교육장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첨단강의실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18:30 ~ 21:30 1일 1 ~ 2강좌
교육내용	부동산 시장 현황, 부동산 개발·금융, 부동산 투자·정책 / 자본시장 현황, 자산 운용·관리 / 재테크 및 사례연구 등

### 원서접수

구분	내용
원서접수	2020년 3월 9일(월)까지 선착순 접수
서류	입학지원서, 사진
접수방법	홈페이지 : http://www.dgureceo.com 팩 스 : 02.2263.8576 이 메 일 : reaceo@dongguk.edu 우 편 :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516호

dongguk UNIVERSITY | 행정대학원 · REACEO

2019년 행정고시 합격자들 '도전하는 동국인 더 많아졌으면'

##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드는 공직자 되고파 ...

“도전하고, 함께하는 동국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3,478명 중 270명, 고위공직자로 입성하는 등용문으로 작용하는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모교는 올해 김명관(경제11, 재경) 라호선(생명과학12, 일반행정) 박지원(법학12, 출입국관리소), 박지훈(경찰행정학부12, 보호관찰직) 등 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 인터뷰는 모교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재 편집했다. 공동인터뷰에서 빠진 박지훈 동문은 본보에서 전화로 별도 취재했다.

### Q. 반갑습니다. 우선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김명관= 아버님께서 공직에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국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진지하게 고민하다 ‘국가에 대한 봉사, 국민을 위해 헌신’ 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확신하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라호선= 몇년 전, 연구에 흥미가 있어 실험실에 들어갔다. ‘하고 싶은 연구’를 하기보다는 ‘투자한 걸 회수할 수 있는 연구’가 중심이 되는, 여러 간섭 때문에 좋은 연구들이 진행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 게 보람있겠다고 생각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훈= 처음부터 공직에 관심이 있어 법학과에 진학했다. 변종필 교수님의 형법, 형사소송법 수업을 듣다가 5급공채 2차시험 유형과 동일한 케이스 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적성에 잘 맞다는 생각을 하여 자연스럽게 고시에 도전하였다.

△박지훈= 평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왔다. 많은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

### Q. 고시 공부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김명관= 합격에 대한 불안이다. 3번 떨어질 때마다 절망감, 좌절감을 극복하는 게 힘들었다. 부모님 지원을 받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있었다. 그래도 부모님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은 긍정적 마인드의 큰 힘이 되었다.

△라호선= 공부해야 하니까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을 참는 게 힘들었다. 아무래도 이것은 합격해야만 해소되는 부분이라 생각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를 잘 참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박지훈= 1차 시험에서 몇 번 고배를 맛봤다. 작년에는 마킹 실수,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붙은 사람은 실수하고도 붙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수도 실력인 점을 인정하고, 1차 시험에서의 실패를 2차 시험의 기초를 다질 기회로 삼고자 발



▲ 왼쪽부터 박지훈, 박지훈, 김명관, 나호선 합격자.

표 다음날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했다.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다.

△박지훈= 2017년에 처음 시험에 응시해서 면접 과정까지 도달하였으나 2차 성적이 미진하여 최종탈락한 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직렬이다 보니 1년 이상을 기다려 시험을 치루어야 했던 것이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 Q. 시험을 준비하며 학교에서 받은 도움이 있다면

△김명관= 3차 면접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들을 받았다. 객채기 교수님의 응원과 김영현 국장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선배님들이 하나하나 멘토처럼 이야기해주시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셨다.

△라호선= 2차 준비할 때 행정법 가르쳐 주시는 정선균 교수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다. 3차 때 면접 준비 특강 역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박지훈= 고시반에서 24시간 개방된 학습공간을 제공받는 것, 그리고 강의료에 대한 지원이나 분기별로 시행되는 장학시험과 장학금이 교재비나 강의비에 보탬이 되었다. 고시반 입반시험에서 교수님한테 직접 채점을 받아볼 수 있는 점이 좋았다. 또한 고시반 내에서도 실원끼리 서로 응원하며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했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1차 모의고사를 전부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박지훈= 시험 준비기간 동안 대부분을 고시반에서 공부했다. 특히 1,2차 과목의 강의를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고시반에서 진행하는 특강들이 수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 Q.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건지

△김명관= 경제관계부처에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의 취약산업이나 약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고민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라호선= 지금 당장 무언가 큰일을 한다기보다는, 중요한 위치에서 정책을 위한 활동을 하며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여 ‘일 잘하고, 성실하고, 우리 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작은 목표다. 이후 제가 생각했던 정책들을 현실로 바꿔나가는 활동을 하고 싶다.

△박지훈= 공부하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받은 걸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공직에서 일하면서 만나게 될 국민, 외국인, 거쳐 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참 괜찮은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

△박지훈= 초심을 잃지 않겠다. 면접을 앞두고 간절했던 그 마음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 내 자신보다 국민을 생각하고, 조직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 Q.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동국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명관= 도전이 불가능한, 이뤄낼 수 없는 일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충분히 다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학교 전공 수업에서 관련된 교수님들의 말씀도 잘 듣고, 강의 내용과 전공을 잘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전공수업내용은 공부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말하고 싶다.

△라호선= 고시를 준비하는 동국인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한다. 우리 학교 사람들과 고시를 준비하는 다른 학교 사람들의 능력 자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겁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져달라.

△박지훈=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 대비 합격하는 인원이 타 학교에 비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준비하는 인원 자체가 적어서 유감이다. 우리 학교 사람들끼리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료라고 생각하며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 공부가 본질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옆 사람의 열기 없이는 지속되기 힘들다. 앞으로 고시반이 더 활성화되고,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박지훈= 처음에 행정고시라는 시험을 준비했을 때 두려움이 많았다. 많은 동국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뜻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한다면 반드시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이 두려움에 지지 않도록 굳은 결심으로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 “고시반 · 교수님 지도에 감사”

합격자들은 공통적으로 고시반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특강과 면접 대비반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별도로 시간을 내 특강을 진행해주신 강동욱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 김준석 교수님, 객채기 교수님을 비롯하여 전공수업에서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과 특히 고시반 배광빈 지도교수님께 감사인사를 전해달라고 밝혔다.

그들의 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결국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별로 맡은 역할과 해야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비해나갈 수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아닐까.

합격자들은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수를 받고, 이듬해 2021년 부서배치를 받는다. 동국대학교 출신으로서, 그리고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 공직사회의 리더로서 언제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온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을 통해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 2019년 8월 28일 ~ 11월 25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p><b>장학금</b></p>  <p>김진문 (64경영) 신성약품(주) 대표이사 3,000만원</p>	<p><b>발전기금</b> 300만원</p>  <p>김희욱 (68법학) 헌법적가치연구원장</p>	<p><b>고문 분담금</b> 100만원</p>  <p>김환배 (68연료공학) (주)풍년 회장</p>	<p><b>부회장</b> 100만원</p>  <p>공기태 (79화학) 세윅트레이딩(주) 대표</p>	 <p>권오춘 (59영문) 초허당장학재단 이사장</p>	 <p>김성재 (58정치) 아세아자산관리(주) 회장</p>	 <p>김진문 (64경영) 신성약품(주) 대표이사</p>	
							 <p>김희욱 (68법학) 헌법적가치연구원장</p>
 <p>이황우 (63경영) 모교 명예교수</p>	 <p>일면스님 (75승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p>	<p><b>감사</b> 100만원</p>	 <p>윤병관 (82화학) (주)이지상사 대표이사</p>	 <p>공기태 (79화학) 세윅트레이딩(주) 대표</p>	 <p>길중구 (82경영) 모교 경영학부 조교수</p>	 <p>김상일 (75건축) (주)집현이앤씨 대표이사</p>	
 <p>김세준 (71화학) 제일모피(주) 대표이사</p>	 <p>김영순 (65화학) 모교 화학과 명예교수</p>		 <p>김명화 (63경영) 前 종로경찰서장</p>		 <p>김오현 (76체교) BK그룹 회장</p>	 <p>김용정 (56철학) (주)범양사 고문</p>	 <p>김창규 (80법학) 김창규법률사무소 변호사</p>
 <p>박학도 (69국제통상) 영암고속(주) 대표</p>	 <p>범타스님 (67인철) 조계종 원로의원</p>	 <p>본각스님 (72철학) 103만원 금류사</p>	 <p>신동수 (71경영) (주)유상 회장</p>	 <p>윤재민 (81사학) 종합출판 범우사 대표</p>	 <p>이재창 (00경영) 태양트레이(주) 대표이사</p>	 <p>임금동 (81경영) 한세상사 대표</p>	 <p>정승식 (76공경) (주)성우정공 회장</p>
 <p>조총미 (81교육) 에이서유학원 원장</p>	 <p>최재성 (84불교) 국회의원</p>	 <p>허창식 (75영문) (주)한빛안전기술단 사장</p>	 <p>황춘익 (02불교) 태평양관광호텔 회장</p>				

**지도위원 30만원**

김낙돌 (64경제)  
 김완식 (64농학)  
 노준식 (58정치)  
 박도근 (61상학)  
 서윤길 (64불교)  
 윤길한 (64정외)  
 이경구 (58법학)  
 이광세 (86경대원)  
 이남진 (46영문)  
 이인진 (60법학)  
 이재욱 (60정치)  
 정재기 (64정외)  
 태연자용스님 (91불대원)

**상임이사 20만원**

강재웅 (83산공)  
 김상래 (78경영)  
 김석희 (57법학)  
 김용표 (69불교)  
 김인호 (01국대원)  
 김학진 (66농경)  
 노환숙 (67경영)  
 유원표 (75통계)  
 이준용 (04행대원)  
 임 식 (73체교)  
 장석현 (79경영)  
 최신식 (86경영)  
 최철수 (69국제통상)  
 홍형기 (76영문)  
 황동휘 (79행정)

**이사 10만원**

강병령 (81한외)  
 김광중 (78임학)  
 김상구 (74경영)  
 김상우 (90화학)  
 김수용 (64경제)

김승기 (69경영)  
 김영생 (81영문)  
 김진관 (11정외)  
 김현권 (80체교)  
 동훈스님 (94불대원)  
 박명준 (71건축)  
 박상국 (69불교)  
 박용하 (77정외)  
 박운규 (85토공)  
 박재구 (76식공)  
 박학수 (64경영)  
 성백열 (07행대원)  
 송경옥 (84연영)  
 송철호 (74체교)  
 안성준 (83영문)  
 엄만웅 (71건축)  
 우병용 (03사대원)  
 유중희 (61농경)  
 유홍배 (70국문)  
 윤재웅 (81국문)  
 이권호 (81정외)  
 이동섭 (74회계)  
 이문호 (72임학)  
 이상철 (79사회)  
 이영옥 (84국제통상)  
 이재형 (91행정)  
 이춘자 (95경대원)  
 전우성 (73공경)  
 전인성 (74행정)  
 정경훈 (82경영)  
 정상모 (90정외)  
 정 찬 (78공경)  
 주상길 (98경대원)  
 차진구 (78건축)  
 최해수 (05사대원)  
 편영배 (92산대원)  
 한동식 (99사대원)  
 홍성권 (77경영)  
 홍창화 (78정외)  
 황기석 (99사대원)

**연회비 3만원**

각원사  
 강경호 (03국문)  
 강인영 (81건축)  
 강재웅 (83산공)  
 강태양 (81행정)  
 고승남 (84경영)  
 공덕사  
 공진식 (57경제)  
 구분경 (92회계)  
 구분홍 (68농학)  
 권순일 (79경영)  
 권영미 (07대학원)  
 권혁희 (83행대원)  
 김경미 (98불대원)  
 김경석 (78불교)  
 김교일 (85경대원)  
 김기석 (82통계)  
 김낙주 (63법학)  
 김명호 (61식공)  
 김백한 (59법학)  
 김부동 (88교대원)  
 김상숙 (69대학원)  
 김상일 (83농학)  
 김석두 (04불대원)  
 김성연 (87통계)  
 김성일 (86건축)  
 김영환 (67위생공학)  
 김원복 (59영문)  
 김윤상 (65정외)  
 김은희 (90통계)  
 김의창 (79수학)  
 김종길 (92국민윤리)  
 김종택 (86대학원)  
 김준배 (문학)  
 김중대 (75경대원)  
 김천수 (52경제)  
 김철환 (89행대원)  
 김택수 (87경영)  
 김혜민 (11정외)

김호성 (95경영)  
 김후석 (72경영)  
 김희영 (70수학)  
 류관주 (78농학)  
 문수사  
 민수영 (59정치)  
 박수천 (88경제)  
 박윤태 (64상학)  
 박은철 (72국제통상)  
 박재용 (82국문)  
 박재정 (80통계)  
 박준욱 (86의학)  
 박지두 (67임학)  
 박태순 (81수교)  
 박태원 (65국문)  
 박한준 (87회계)  
 박학수 (86회계)  
 박형배 (85전산)  
 박형주 (01경제)  
 박훈 (73경대원)  
 박희운 (75회계)  
 박희익 (63상학)  
 배주환 (77전기)  
 백봉흠 (57법학)  
 백승권 (85국문)  
 변준연 (86토공)  
 보석사  
 보천사  
 보현사  
 비로사  
 사현스님 (02불대원)  
 서재희 (64경영)  
 소봉순 (00경영)  
 송승훈 (01전기)  
 송윤용 (84행대원)  
 수선정사  
 신평사  
 신영철 (57국문)  
 신혜숙 (81국문)  
 양병일 (92건축)  
 양정기 (65통계)

엄충식 (86식공)  
 여민영 (17교육원)  
 오혜성 (96문대원)  
 용천사  
 용화사  
 우정스님 (96불대원)  
 원각사  
 유경철 (92전자)  
 유지훈 (77행정)  
 유희민 (07행대원)  
 윤장근 (65법학)  
 은적사  
 은하사  
 이국섭 (99경대원)  
 이근대 (88철학)  
 이근수 (98북한)  
 이길원 (79토공)  
 이문세 (91법학)  
 이범진 (65정외)  
 이상규 (89행대원)  
 이성수 (88사회)  
 이성철 (94경영)  
 이승모 (64농경)  
 이승후 (88경대원)  
 이양길 (64인철)  
 이연신 (69철학)  
 이연심 (97화공)  
 이영규 (73수학)  
 이영환 (88경대원)  
 이인용 (88국제통상)  
 이종민 (00경영)  
 이창근 (83농경)  
 이창근 (72체교)  
 이창섭 (75경영)  
 이천성 (82경대원)  
 이태형 (86물리)  
 이평세 (64정외)  
 이학성 (07미술)  
 이 황 (72식공)  
 임운기 (60농학)  
 임준형 (87사회)

장경사  
 장근석 (82물리)  
 장영권 (47경제)  
 장원동 (93사대원)  
 장익선 (71물리)  
 전성표 (17교육원)  
 전찬송 (84경영)  
 정경률 (89건축)  
 정민스님 (97불대원)  
 정병주 (83경영)  
 정상훈 (96법학)  
 정성일 (89경영)  
 정현중 (67농경)  
 정홍락 (07대학원)  
 조동현 (64농경)  
 조화제 (00국대원)  
 주원규 (63국문)  
 지울스님 (01불대원)  
 천수호 (83인철)  
 청룡사  
 최관호 (84경영)  
 최병주 (61불교)  
 최상욱 (81환경조경)  
 최순태(법매)  
 최영안 (63국문)  
 최윤희 (07경제)  
 최종열 (82토공)  
 축서사  
 태고사  
 한권규 (82건축)  
 함상섭 (57정치)  
 향적사  
 현중스님  
 형성훈 (04행대원)  
 해광스님 (06불대원)  
 홍등호 (96회계)  
 홍익표 (73건축)  
 화림사  
 황보치욱 (97컴공)  
 황우열 (71인철)

**단체 연회비**

동대부속여자중학교  
 57만원 (3만원x19명)  
 구경민 (03가교)  
 김남일 (77불교)  
 김대원 (92국민윤리)  
 김상민 (92응생)  
 김수영 (02수교)  
 김은경 (92국교)  
 박현정 (85지교)  
 백계순 (99교대원)  
 유태선 (02체교)  
 윤용민 (91지교)  
 이상훈 (05교대원)  
 임민영 (07회계)  
 장경숙 (76가교)  
 장기환 (92국민윤리)  
 전정란 (81농생)  
 정남수 (81수교)  
 정의영 (08수교)  
 조영숙 (87교대원)  
 한정욱 (92체교)

**발전기금**

김종필 (82행정) 월 3  
 누계 : 141만원  
 동명사 월 2  
 누계 : 138만원  
 박수희 (10의생명) 20  
 부양채 (77철학) 10  
 윤혜원 (15교대원) 20  
 이인진 (60법학) 2

**동국장학회**

이성훈(97정보) 월 2  
 누계 : 34만원  
 이진혁(75화학) 월 5  
 누계 : 365만원

동국대학교총동창회  
 DONGGUK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 여러분의 회비는 새로운 100년을 창조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총동창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동창회비는 회원간 우의증진, 후배 장학금, 동창회보 발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동국발전의 큰 길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 임원회비 및 동창회비**

- 고문 100만원 이상
- 지도위원 30만원
- 이사 10만원
- 부회장 10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년회비 3만원 · 평생회비 50만원

**○ 장학금 협찬**

□ 송금계좌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송금계좌 : 국민은행 501601-01-141914  
 (예금주 :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 지로납부 :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등문께서는 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02-733-030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앰배서더 호텔 그룹의 로열티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표 호텔 전문 기업 앰배서더 호텔 그룹의  
멤버십 프로그램 AMBASSADOR CLUB은  
럭셔리 특1급부터 합리적인 비즈니스 호텔까지  
전국 앰배서더 호텔에서 풍성한 회원 특전을 제공합니다.

- 할 인**    객실 추가 할인, 레스토랑 & 바 최대 20% 할인
- 포인트**    객실 5%, 레스토랑 & 바 1%, 연회 0.5% 적립
- 혜 택**    유료 멤버십 회원 대상 쿠폰북 지급  
             웰컴 드링크, 레이트 체크아웃 등 등급별 특전 제공
- 가입문의**    회원관리팀 02-2278-4100 또는  
             ambatel.com 멤버십 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 QR 코드 스캔하여  
가입 페이지 이동

# AMBASSADOR CLUB